일체를 다 자기 주인공 한군데다 묶어 놓고 맡기고 살라

☞ 15면에서 계속

다 없어지고, 그 충만한 의식을 가지고선 이 세상에 모든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얼마나 한생각을 내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기복으로만 자꾸 돌아가서, 이 기복이라는 것도 좋은 말로 들리겠지만 그 말보다도요, 행이 모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이란 말입니다. 또 얻어먹게도 하고요. 나중에는 얻어먹다 얻어먹다 강도질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몸뚱이가 없어지고 의식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끼리끼리 모이죠.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배는 배대로 놓고, 금은 금대로 놓고. 아니, 사람들도 전부, 공업을 하는 사람은 공업,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 이렇게 끼리끼리들, 뭐, 누가 오너라 가거라 할 거 없이 공부한 과목대로 그냥 풀려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던 그 마음이 죽어도 역시 항상 해코지를 해. 그저 살아 있는 거기 가서 '왜 내가 너를 이렇게 때리는데도 말도 안 하고,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앉았는데도 왜 아는 척도 안 하니?'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상대방이 모르는 줄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줄 모르니까. 그렇게 몰라. 그러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솔직한 얘기지만, 내가 여러분한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합니다. 너는 과거에 어땠고 과거의 부모네가 어땠고 뭐, 자식이 어쨌고 뭐, 이렇게…. 그거 다 얘기한다면 복잡하고, 공부할 수도 없고, 그걸 밀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글쎄, 어떡해요.

어떤 땐 정 이게 이러면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러 다만 얼마를 봉투에 해 가지고 올 때 말없이 거기다가 메모를 해 놓습니다. 왜냐? 전자에 살던 조상분들이 너무나 몰라서, 자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 의식으로 살았던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는 그냥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모르느냐, 나를 못해 주느냐?" 이러고 전자부터 나오던 게 자꾸자꾸 얽매여서 돌아가, 그냥. 얽히고설킨 게 다 붙어 돌아가니까 그거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죠. 이게 몸뚱이 갈 때 혼자 홀가분하게 가고, 마음도 홀가분해야 걸음도 잘 떼고 좋은데 한 짐 잔뜩, 만약에 요 귀까지 요렇게 어깨에 올려놓고 있으면 팔도 움죽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느 사장이 골수염으로 모두 죽는다고 그러고 고생을 할 때, 내가 그랬거든요. "지금 부산을 차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차 꼭대기에 귀까지 이렇게 그냥 물건을 실어 놨으니까 이 팔도 움죽거릴 수 없고 귀도 잘 들리지가 않고 그러니 어떻게 부산을 가십니까? 물건 좀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랬어. 그랬는데 못 알아들어. 백지야. 요 어깨에 있는 것만 내려놔도 이게 갈 텐데 못 가는 거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이러면서 그냥 홱 가 버리는 거야.

아, 못 알아들었더라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러면 그 뜻을 알 텐데 그냥 가는 거지. 허허허. 그러곤 가길래 속으로 빙긋이 웃으면서 '아,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어떡할 수 없다 그러더니 할 수 없구나. 저이는 돈만 보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무겁게 짊어졌다는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그냥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곤 말았죠. 그랬더니 그 식구들도 다 그렇게 됐고, 그 재산도 회사도 그만 그렇게 됐고…,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모두가 살아나가는 데 급급해서 그냥 애를 쓰고, 이름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이론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지식으로 사는 거 이런 거, 남의 거를 갖다가 빼서 어떡하든지 내 걸로 만들어서 그저 좋게 얘기해 주면 될 줄 알고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엊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정락 스님더러. "이런 분 이런 분이 선객인데, 선객으로 가시는 큰스님네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행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 동감입니다. 스님 생각이 꼭 옳습니다." 이러시더군요. 내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그 진실한 도리를 앎으로써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뜻을 지니고, 진실한 그 뜻을 지녔기 때문에 자기가 익게 되고, 익게 되면 고개가 숙어지고, 고개가 숙어지면 언제나 나 아님이 없고 전부 둘이 아니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런 도리를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모두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집을 해서 그저 비는 걸로만 만들지 마세요. 법성게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 종성도 그렇게 좋은 말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그냥 아주 비는 걸로만 해 놓고, 그나마 그냥 원문으로 둔 것은 또 괜찮고요. 하여튼 바깥으로 끄달리지만 않으신다면 빌지 않을 겁니다. 또 안으로도 빌지 않을 겁니다.

왜? 안으로 둘로 본다면 기도를 해야 하지만, 둘로 보지 않는다면 '관(觀)하라' 이런 소립니다. '내 주인공만이,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까닭에', '마음과 내 몸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 소립니다. 마음과 이 몸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것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런다면 그 무엇이 있었던가? 그냥 주먹으로 이걸 하나를 집어서 한 번 친다면 쩡 울리는 그 뜻, 두 손으로 그냥 두 개를 집어서 팍 친다면 번쩍 불이 일어나는 찰나, 이겁니다, 모두가. 이 공부가 참 재미있고, 생활 속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찰나의 생활을 그냥 여여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빌어먹으려고만 하고 빌고 있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글쎄.

영원토록 우리는 그냥 쉴 사이 없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금방 그렇게 났다가 금방 이렇게 늙든지 젊든지 죽는다 그런다면 의식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그 의식을 자기가 알면 그냥 곧바로 갈 것이고, 죽기 전에 벌써 대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요. 그러고는 집을 다 마련해 놓고 가고, 또 그 도리를 모른다면 집도 안 해 놓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또 만들고 또 그것도 모른다면 집을 만들려고 거기 갈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죠, 아무 데나. 돼지 소굴이든 뭔 소굴이든 그저 돼지우리든, 소가 있는 데든 새가 있는 데든 뱀이 있는 데든 그걸 모르니까. 까치 둥우리인 줄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 그게 한 번 잘못에 그 소굴로 들어가 그 모습을 가지면, 그 모습이 살고 있는 거기의 의식이 배어 가지고는 사람으로 돌아오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요, 어마어마한 공부요.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손안에 넣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왔다 그냥 슬며시 스러져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요거 한 철을 잘 공부한다면 세세생생에 우리는 끄달리지 않을 거고 얽매이지 않을 거고, 나와 둘이 아닐 거고 둘이 아닌 까닭에 나툴 거고, 나투는 까닭에 건질 거고, 건지는 까닭에 부처와 부처가 둘이 아닐 거고….

아무리 부처가 수만 명이 됐다 할지라도 부처의 마음은 둘이 아니게 하나가 돼 버려. 부처님의 제자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마음과 그 깨달은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이것도 부처 이것도 부처, 모습은 다르지만 다 부처라. 하나야. 부처는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도 없느니라 이거야. 하나도 없느니라. 왜? 제자가 만 명인데 아, 글쎄, 제자가 자기와 같이 다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 깨닫지 못했든 깨달았든, 하여튼 그 만 명이 다 자기 마음하고 똑같이 그냥 합쳐져서 계합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가 하나다 할 수도 없고, 부처가 많다 할 수도 없고, 부처가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엉거주춤 말하기를 "무(無)!" 했단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고 그 하나마저도 없으니 하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만 개가 하나로 돌아가고 또 만 개가 됐다가, 만 개가 하나로 돌아가고 또 만 개가 제가끔 됐다가, 그 만 개가 또 수만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십억 만 개도 될 수 있으니 어쩌느냐 이거죠. 그러니 부처라는 이름도 없느니라. 그게 바로 부처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좌석에서 깨닫는다 하더라도 다 부처님 마음 안에서 그냥 하나의 부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은 지금 시급한 것이, 그전에 내가 광명선원에서 설법할 때 이랬죠. 그때 뭐, 요것만 생각나요. "구이팔이…."라고 그랬던가? 그러면서 무슨 시를 읊은 게 있어요. 또 예전에 그, 십 년 전인지 뭐, 아마 십 년 전일 거예요. 그때 또 왜 "팔팔 공치기는…." 이런 시 읊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가당치도 않은 말이니까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해서 던져 놓는 거죠. 그대로 생각해서 놓으면 그대로 실행이 나와요. 이것이 과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자동 과학이야. 자동심 과학.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 잘 치렀죠? "십중팔구 좋을시고." 했으니 말이에요. 어때요, 멋지죠? 우리가 삿갓 쓰고 주장자 짚고 신발을 거꾸로 머리에다 쓰고, 거꾸로 다닐 줄 안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을시고'예요.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무엇을 더 바라겠나' 이런 셈이죠.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따로 이렇게 모습은 있지만 따로 없듯이, 부처 중생이 따로 없듯이 그 뜻을 앞으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또 배우는 것만 아니라 증득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자기 주인공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 가정을 해결할 수 있다.' 일체를 다 자기 주인공 한군데다 묶어 놓고, 맡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세 가지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인과에 의한 모든 걸 녹이는 법이요. 둘째는 습을 떼는 법이요. 셋째는 나를 발견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가정도 편안하고 내 맘도 편안하고, 전부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내가 농사짓고 부지런히 뛰어서 내 밥 내가 먹는 거지
누가 나를 먹여 주고, 누가 행복을 갖다 주고
누가 하나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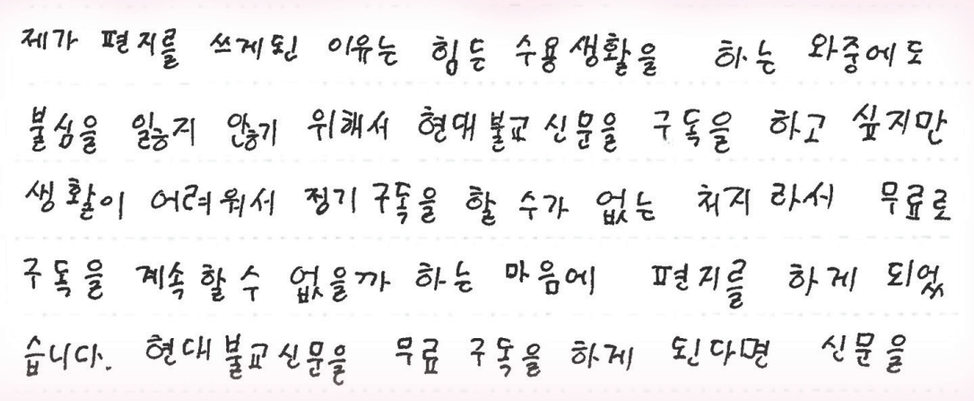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